

코스피 3000·코스닥 1000 붕괴

# 실적-테이퍼링 사이 흔들리는 증시... 3일 美 FOMC 분수령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0월 거래대금 1년 중 최저 수준  
증권업계, 국내 박스권 장세 전망  
“리오프닝’ 관련주 관심 가져야”

지난 주말 코스피 3000과 코스닥 1000선이 무너지면서 향후 증시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9일 코스피는 2주 만에 3000선 아래로 밀렸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에 코스닥 지수도 증가 기준으로 1000선을 밀돌았다. 전문가들은 오는 3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발표할 경우 증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증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87포인트(-1.29%) 하락한 2970.68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4일(2988.64) 이후 3000포인트를 넘어서며 3050 가까이 반등했지만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전환해 3000선이 다시 무너지는 것. 9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



코스피가 전거래일(3009.55)보다 38.87포인트(1.29%) 하락한 2970.68에 장을 마친 지난 29일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1000.13)보다 7.80포인트(0.78%) 낮아진 992.32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69.7원)보다 1.1원 내린 1168.6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피 지수는 10월 내내 2900~3050을 횡보하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8005억원, 기관은 4759억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개인은 1조2566억원 규모를 홀로 순매수했다.

10월 들어 거래대금도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7500억원으로 집계됐

다. 지난해 10월(10조8599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코스피가 급등하던 지난 1월 일평균 거래대금(26조48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증권업계는 국내 증시가 한동안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부터 워드 코로나로의 전환 시 작과 양호한 3분기 실적이 상승 요인이

지만 미 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시행, 제조업 심리 위축이 하락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오는 3일(현지 시간)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연준 위원들은 테이퍼링을 11월이나 12월에 시작해 내년 중순에 끝마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어 제품 과잉의장이 이번 FOMC 회의 이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을 경우 주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테이퍼링 결정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라며 “지난 28일 발표된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은 2.0%로 시장 전망치(2.7%) 대비 저조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되는 테이퍼링이 일시적으로 시장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금융시장이 테이퍼링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테이퍼링이 본질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간에 걸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차례 변동성을 거친 후 시장의 관심은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 대목의 소비로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워드 코로나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의 리오프닝(경제재개) 관련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은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분기부터는 워드 코로나, 리오프닝의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매크로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워드 코로나와 리오프닝의 수혜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고 개별 모멘텀이 강한 기업을 중심으로 압축하는 선택적 리오프닝 전략을 제시한다. 물가(평가) 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 필수 소비재의 선포도가 사치재 대비 다시금 매력도가 높아지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yung96@metroseoul.co.kr

## 거세지는 대출 한파... 2030·서민 ‘와들와들’

### 금융 이슈리포트

내년 1월 차주단위 DSR 적용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절벽’에 내몰리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단 전세 대출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추가 규제 가능성의 문은 여전히 열려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빚이 많은 서민에게 타격이 예상된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최근 기준금리 인상까지 덮쳐 극한의 상황까지 몰릴 것이라 지적도 나온다. 주식시장 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를 이어오면서다.

◆가계부채 ‘급등’에 칼 빼든 금융당국  
최근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해온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41조 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도 최대치를 기록하며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을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유도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 등을 골자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상환능력 중심에 따른 대출관행을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브리핑에서 “값을 수 있는 만큼만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

/금융위원회

구분	21.7월 이전	1단계 (현행)	2단계	3단계
주담대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 전 규제지역 5억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해지)
신용대출	연소득 8000만원 초과 & 1억 초과	② 1억원 초과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가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먼저 내년 7월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을 오는 1월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1단계 규제인 차주단위 DSR 4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과 7월 추가 규제도 예고됐다. 먼저 1월 이후에는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한다.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의 받으면 모두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빚투 이어 대출 규제... ‘이중고’ 겪는 2030

정부의 대출 규제에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때문에 DSR 40% 규제를 조기

시행하게 되면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다. 즉,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2030세대의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것.

빚을 내기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자 부담은 늘어난 점도 우려를 더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오는 11월 추가 인상도 유력해지면서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030 전세대출 잔액은 5년 새 6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2017년 29조 1738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88조 234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2030세대가 평생 월세로 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정책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현재 소득이 적은 2030세대에게도 미래 소득을 인정해 주담대를 장기로 해줬다. (현재 규제는) 주택이라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2030세대는 속된 말로 집을 산다는 꿈을 깨고 월세만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韓 콘텐츠 포털사, 원천 IP 확보 경쟁 치열

네이버 국내외 웹소설 전문사 인수  
카카오 웹툰화 등 제작사 협업 확대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소설 IP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양대 포털사들이 원천 IP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가 국내외 유명 웹소설 전문사들을 인수하고 있다. 카카오는 웹소설 작가 육성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IP 선점에 나서고 있다. 웹소설 IP는 웹툰, 드라마 등을 제작할 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직접 웹소설 제작사업에 나서거나 자사 플랫폼에 신규 작품을 합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이버, 국내외 전문사 인수 통해 IP 확보

네이버는 국내외 유명 웹소설 전문사를 인수해 웹소설 IP를 확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판타지, 무협 장르에 강점이 있는 국내 1세대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를 인수했다.

올해 초에는 캐나다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지분 100%를 6억달러(약 7024억원)에 인수했다. 왓패드는 이용자수 9400만명으로 전 세계 웹소설 관련 플랫폼 중 가장 사용자 수가 많다.

네이버는 국내외 유명 웹소설 플랫폼들을 차례로 인수한 후 양질의 원천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에 나선다.

웹소설의 드라마화는 이미 콘텐츠 업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앞서 네이버 웹소설 원작의 ‘선배, 그립스틱 바르지 마요’, ‘구르미 그린 달빛’이 높은 화제성을 보이며 높은 인기를 끌기도 했다.



‘재혼황후’는 오디오 ‘녹음의 관’은 웹소설 드라마로도 제작되는 로인기를 얻은 후 웹툰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재탄생했다. /네이버

최근에는 오디오 드라마로도 제작하는 등 IP 활용 범위를 보다 넓혀나가고 있다.

◆카카오, ‘노블코믹스’ 작업 속도

카카오는 웹소설 제작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웹소설 IP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다운크리에이티브’다. 다운크리에이티브는 유명 웹소설의 웹툰화, 웹소설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다. 자체 웹툰을 제작하는 다운스튜디오도 가지고 있다.

다운크리에이티브에서 탄생한 대표작으로는 녹음의 관, 악당의 아빠를 꼬셔라, 구경하는 들러리양 등이 있다. 모두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독자들의 인기를 얻은 후 웹툰으로 재탄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카카오는 이미 2015년부터 웹소설을 웹툰으로 전환시키는 ‘노블코믹스’ 작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었다. 계속된 투자로 그 규모가 커져 노블코믹스CIC라는 사내독립기업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카카오는 웹소설 IP 확보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며 노블코믹스도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